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9, 2017 Vol. 565

"저보고 한국어로 설교하라구요?"

〈오늘도 희망이다〉 남가주가스펠교회 이원준 목사

글 · 사진 김준형 기자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주 바뀌는 현상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일이 함께 발생하면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다.

지난 1월 남가주가스펠교회에 부임한 이원준 목사는 만나자마자 "새벽예배 성도가 4배나 부흥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는 2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8명이나 왔다"는 거다.

이원준 목사는 EM 목사 출신이다. 11살에 부모와 함께 미국 LA로 이민 왔지만 주로 텍사스에서 자랐다. 텍사스의 분위기에 맞게 남침례회(SBC)보다 더 보수적인 독립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 백인교회, 한인교회 EM 등 여러 곳에서 사역했다. 때론 지쳐 목회를 떠나 좀 '쉬기도' 했다.

그러다 도착한 곳이 바로 주님세운교회였다. 박성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후 예배 장소를 구하지 못해 호텔을 빌려 예배 드리던 때다. "이 교회면 우리 애들 맡겨놓고 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등록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커지면서, 얼떨결에 그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명과 함께 EM을 시작하게 됐다.

그가 EM 목사로 섬기는 8년 동안 200명으로 부흥했다. 그는 교회의 부흥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희망을 발견했다. 박성규 목사로부터 '빡센' 훈련을 받은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였다.

목회지를 옮길 마음이 전혀 없던 이 목사에게 남가주가스펠교회가 손을 내밀었다. 남가주 신학계에서 모를 사람이 없는 페이스 김 박사와 정형외과 의사 데이빗 김 박사 부부를 만나 교회의 속 이야기를 들었다. 난생 처음 한국어로 설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주님이 이 교회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현재 이원준 목사는 2부 예배에서 한국어로, 3부 예배에서 영어로 설교한다. 2부 예배에는 60여 명, 3부 예배에는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사실 이것도 엄청 부흥한 거에요. 이제 3부 예배 때엔 한인뿐 아니라 가든그로브 지역에 거주하는 다민족들도 오고 있거든요."

EM 출신의 1.5세 목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두 회중을 이끄는 담임목사가 된 케이스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현재 이 목사 옆에서는 1세 회중을 섬기는 박경민 수석목사와 찬양사역자이자 1부 예배 설교자인 이천 목사가 돕고 있다. 여러모로 '전통적인 한인교회 스타일'은 아니다.

"EM 목사로 있을 때엔 KM에서 자꾸 새벽기도회 나오라고 하면 그건 1세나 하는 거지 2세는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담임이 되어 보니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소중한 유산인지 깨닫네요."

1.5세 목사가 담임이 되더니 새벽기도를 배웠다고 한다. 목사뿐 아니다. 1세 성도들은 다민족과 함께 예배하게 됐고 2세들은 1세들로부터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다민족을 섬기게 됐다. 하나님께서 남가주가스펠교회를 사용해 새롭게 일으키실 '희망'을 우리도 함께 기대해 보자.

교회 주소)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92844
전화번호) 714-799-5673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목회자를 위한 Audio Book Club
Drama Bible 활용 세미나
*대상 : 목회자 및 신학생
*강사 : 박동희 권사 (성서유니온 미주대표, KOSTA 강사)
*주최 :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 / 성서유니온
*협력 : LA 동부교역자 협의회
*일시 및 일정 : 3월 2일(목), 오전 10:00~12:30
1)오전 10:00~11:00 Audio Book Club 및 Drama Bible 소개
2)오전 11:00~12:30 연령대에 맞춤 활용법
3)오후 12:30 점심
*장소 :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강사 : 박동희 권사
*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교재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미나 신청: T(909)591-6500(선한목자교회)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한미평화연합기도회 및 동포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위기의 한국 위해 동포들도 기도해 달라

국가조찬기도회 채의숭 회장, 김영진 초대회장 초청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남가주지회가 한미평화연합기도회 및 동포간담회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2월 5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채의숭 회장과 김영진 초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후,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마지막으로 LA를 들르며 오는 3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 국가조찬기도회를 동포사회에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면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영진 초대회장은 "한국은 지금 촛불이 태극기를 불태우냐, 태극기가 촛불을 덮느냐로 갈등하며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며 "3월 2일 동포들도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채의숭 회장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조찬기도회와 남가주교협, 종교개혁5백주년기념사업회가 함께 준비했으며 한국과 민족, 동포 교계, 남가주 지역 교회 개혁을 위한 합심 기도 시간도 있었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에 기여한 이창엽 글렌데일 시 커미셔너와 3.1여성동지회 홍순옥 회장에게 평화의 메달을 수여했고 남가주교협과 미주한인재단은 김영진 초대회장과 채의숭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순복음교회가 황국명 목사 초청 집회를 개최했다.

남가주순복음교회

황국명 목사 초청 찬양간증집회

지난 5일 주일 남가주순복음교회가 다윗과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해 찬양간증집회를 열었다. 남가주순복음교회 두나미스 찬양팀이 찬양의 문을 열었고 박재만 담임목사가 대표기도를 한 후, 황국명 목사가 설교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박재만 담임목사는 "2017년의 모든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순복음교회는 올 한해 위로가 필요한 여러 선교사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설교를 들으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에 힘쓸 예정이다.

남가주순복음교회는 지난해 11월 사이프러스에서 애너하임으로 이사하며 재도약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주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문의) 714-952-0191
www.socalfgc.com

김준형 기자

오서택 LA지방회장이 김시온 담임목사로부터 서약을 받고 교회 치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 빚어가는 옹기장이교회 창립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소속 옹기장이교회가 창립됐다. 2월 5일 주일 창립감사예배에는 이 교단 관계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의 출발을 축하하며 함께 기도했다.

이 교회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미주성결회관(691 S. Harvard Bl. Los Angeles, CA 90005) 빌딩을 빌려 사용하며 주일예배를 오후 2시 30분에 드린다. 김시온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빚어가는 사람들의 사랑공동체"라고 교회를 소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지방회 서감찰장 최경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지방회 부회장 최은호 장로가 기도, 서기 김종호 목사가 성경봉독, 회장 오서택 목사가 "장자들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봉헌기도는 회계 최청학 장로가 했으며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이상복 목사와 총무 이홍근 목사가 축사하고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목사가 격려사, 전 총회장 조종곤 목사가 권면했다. 축도는 신원철 목사가 했다.

행사 순서 중에는 지방회와 원로 목회자들이 개척후원금을 교회에 각각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문의) 213-407-4569

가정교회 사역의 대가 최영기 목사 초청 부흥회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릴리선교교회(한천영 담임목사)가 가정교회사역원장 최영기 목사를 초청해 2월 10일(금)-12일(주일)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연다.

강사 최영기 목사는 휴스턴서울교회를 섬기며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목회를 창안해 미주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특히 그의 저서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목회의 영감을 주었다. 소그룹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가정교회 시스템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역이나 다락방, 셀, 속회와 같은 소그룹이지만, 신약교회의 모습과 성경적인 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모이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최영기 목사

갈릴리선교교회는 지난 수년간 휴스턴서울교회와 동역하며 가정교회 사역을 펼쳐 온 바 있다. 부흥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2월 11일(토) 저녁 7시 30분
2월 12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교회 주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전화) 323-735-6412
홈페이지) www.gmcchurch.com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2017년 SATS Ph.D 취득설명회

남아공화국 연방정부에서 인준하는
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SATS)에서는
Ph.D 학위 취득을 원하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입학 및 등록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현재 많은 신학교수들이 남아공화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등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사역하고 있으며 COURSE WORK이 없고 논문 심사를 위주로 하기에
그 어느 곳보다 저렴한 학비 책정으로 있음으로 많은 Ph.D Candidate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1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교육관 (1750 N. Egemont St., LA, CA 90027)
- 설명회 담당 : DR. JAESUNG KIM, Ph.D.
- 연락처 : 1-267-262-0909(DR. JAE SUNG KIM, Ph.D)
  1-949-331-0122(DR. JOSEPH LEE, D. Min)

SOUTH AFRICAN THEOLOGICAL SEMINARY
Bible-based · Christ-centred · Spirit-led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가 열렸다.

영육 모두 건강한 파워 크리스천으로 회복

제22차 JHM 영성 컨퍼런스 성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천으로의 회복'이란 주제로 제22차 영성 컨퍼런스(JHM 영성 컨퍼런스)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빅베어 파인 크레스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2009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22차를 맞는 JHM 영성 컨퍼런스는 여캘빈 목사가 주강사로 3박4일간 이민 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영육간에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 목사는 "처음에는 이민교회에 치유가 필요한 목회자를 돕고자 시작한 사역이지만, 평신도들도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영육간의 건강한 신앙생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아래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 날 강의에서 여 목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증도 이어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영희 전도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집회였다. 성만찬 시간 때 목사님의 기도로 수년간 고통 받았던 좌골신경통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성도는 "깊게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왔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가 2월 기도회를 지난 8일 토랜스선한목자교회(김현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정기기도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2월 정기기도회를 8일 열었다. 윤목 회장의 인도로 안병권 목사(가나교회) 기도,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설교, 합심기도, 송정명 목사(KCC 공동대표)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4월 9일 고난주간에 사우스베이 교회가 연합해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조국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구 목사는 "남가주목사회는 앞으로 각 지역의 목사회들과 하나되어 3.1절 기도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인규 기자

이다윗 군의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사진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다윗 군이고 바로 뒤가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담임목사다.

뇌성마비 극복한 13살 시인의 "희망의 노래"

이다윗 군, 성경 통독과 암송의 기적

1.8kg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증과 뇌성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아이…. 8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 13살에 120편의 시를 쓰고 2016년에는 '지혜로움을 걷는 아이'란 첫 시집을 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중증장애를 극복한 13살 시인 이다윗 군이 직접 자작한 시를 낭송했다. 지난 5일 성화장로교회(이동진 목사)에서다.

이 군의 자작시가 들려질 때마다 박수가 갈채가 터져 나왔다. 성경과 자연, 그리고 가족이란 세 가지 주제로 들려주는 그의 시는 참석한 이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 덕에 참석한 성도들도 힘든 이민생활에 희망을 꿈꿨다.

"나는 뭐가 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시를 쓰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나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급차 운전수가 되려고도 했고, 의사가 될까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육과 영을 치료하는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다윗 군은 현재 경기도 안성의 시골집에서 부모와 두 동생 에스더, 한나까지 다섯 식구가 살고 있다. 부친 이근수 목사는 이 군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택했다. 이 군은 하루에 신구약 성경을 10장씩 읽으며 수십번 통독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세계의 역사도 줄줄 꿰고 있다. 이날 실제로 한 성도가 "1961년도에 미국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1961년부터 1963년까지의 역사를 줄줄이 읊어 성도들을 탄복하게 만들었다.

이근수 목사는 "유대인들의 테필린 말씀 중에 한 부분인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며, 말씀 앞에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면서 "아빠지만 저 역시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얻은 이 군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흥한국의 초창기 멤버이자 PD 출신인 이근수 목사는 올 상반기 경 부흥한국 팀과 함께 이다윗 군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인규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5

말라티야 선교사들의 이야기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소개하고 싶고 그 사역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진이나 이름이 거론되어져 혹시 악용되거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도 든다. 필자는 2007년부터 이슬람권 선교에 눈을 떴다. 나를 그 길로 안내한 분은 실크 웨이브 미션의 김진영 선교사다. 그는 터키 선교사로 있으면서 터키 연합 중보기도 운동을 일으킨 리더십 중 한 분이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운동은 한국교회의 선교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터키 남부 항구도시인 안탈리아에서 첫 연합 중보기도회가 열렸다. 300명 가량의 선교사들과 중보기도자들이 모였다. 강사 중에 분당샘물교회 박은조 목사가 있었다. 마지막 날 비가 쏟아지는 아스펜도스 야외 광장에 기도자들이 모두 모였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여행객들이 거의 없었던 것도 '여호와 이레'였다. 모인 무리들 앞에 박 목사가 섰다. 설교 중에 그 분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자. 순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했다.

하나님은 그 설교를 받으셨고, 우리의 '아멘'을 받으셨다고 믿는다. 그렇게 연합 중보기도회가 끝난 후 2개월이 채 안된 4월 18일 오후 터키 말라티야에서 순교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독일 선교사인 틸만 게르케, 현지인 목사들인 네자티와 우르육셀 등 세 분이 다섯 명의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테러로 순교를 당했다. 3개월 후,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선교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게 피랍된 후, 두 명이 순교를 당했다. 박은조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이었다. 경위나 내용은 모두 아는 바다.

필자는 두 순교 사건에 대한 각 나라 교회들의 대처의 차이를 말하고 싶다. 먼저 말라티야의 순교 사건 후에 틸만 선교사가 섬기던 현지 교회와 부인 수산나 선교사를 돕기 위해 미국 WEC선교회 소속 선교사 세 가정이 자발적으로 말라티야 교회에 합류했다. 그후 그들은 목숨을 건 예배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 독일교회도 수산나 선교사를 계속 지원했다. 합류한 선교사 가정들 중에는 한국계도 있었다. 2015년 필자가 말라티야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가정들과의 만남과 말라티야 교회에서의 주일예배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의 반응이다. 샘물교회 순교 사건이 났을 때 한국사회는 한결같이 비난했다. 교회는 용기를 잃었고 그 비난에 합류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마다 이슬람권 선교에 빨간 깃발을 들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천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오히려 그 순교를 기회로 이슬람권을 향한 젊은 청년들의 선교사 지원이 차곡차곡 이루어졌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권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있다. 부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 앞에서 그 영적 가치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더 고취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말라티야를 방문해서 교제한 선교사 가족들

지난해 3월 열렸던 제3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단체 사진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 보고 배우자"

리치몬드 주예수교회에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4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와 목회 리더십(Missional Church and Pastoral Leadership)"이 오는 3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 소재한 주예수교회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이 주최하고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국내선교위원회가 협력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제4회째를 맞이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조직신학)가 "선교적 교회와 이민목회 신학", 신혁선 교수(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사회복지학)가 "선교적 교회의 사회복지",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이민목회",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실제와 목회 리더십," 그리고 노승환 장로(주예수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 강연을 하게 된다.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럽과 미주 선교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에 미주 한인교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은 불과 5년 미만이다. 2014년 미 동부지역 최초로 시작된 이 선교적 교회 세미나는 새롭게 변화하는 이민목회 환경에 맞는 선교적 교회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찬 목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과 교회 개혁의 차원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의 불균형 속에서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상으로 제시되는 교회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함께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 이론의 다양한 이민목회 현장 적용 실제, 강사들의 상세한 목회 리더십 멘토링, 미 전역에서 온 목회 지도자들과의 선교적 교회 현장에 대한 폭넓은 나눔과 교제,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 리더십 협력 구축 등 참여하는 목회 지도자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이민교회의 목회적 모델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등록 문의는 주예수교회 홈페이지(www.ljkc.org)를 방문하거나, 교회 사무실(804-560-7500, 7509)로 전화하면 된다.

故 정원섭 목사 소천 10일 천국환송예배

남가주광염교회 정우성 목사의 부친 정원섭 목사가 2월 2일 오후 11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0세.

천국환송예배는 10일(금) 오후 7시 대한장의사(160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있고 하관예배는 11일(토) 오전 11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에서 있다. 집례는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목사가 한다.

정 목사는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70세에 은퇴해 미국으로 이민 왔다. 10년 전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LA사랑의교회가 개척될 때 명예장로 직분을 받아 개척 멤버로 섬기기도 했다.

유학생과 신학생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2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GL2 강의실(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이다.

이 강좌는 유학생들과 특히 신학생들에게 유익한 세금 관련 정보와 세금 보고를 위한 준비에 대해 알려준다.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강좌 자료는 당일 무료로 배부된다.

강사 제임스 구 교수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문의) 714-393-4595, 714-515-5431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누가복음 10:25-3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어떤 율법사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가르치심을 기대해서 영생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던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 그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5 이하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삶의 의욕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진정 믿어지는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믿어지며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은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이 있는데, 영적인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레위기 17:11의 말씀처럼 육적인 목숨은 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12부터 보면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며, 열매를 찾으셨으나 잎사귀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는 육체의 세상조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무화과는 생존의 의미가 없으니 생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튿날 제자들은 그곳을 지나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6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로 섬김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더욱 강건하고 윤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그저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힘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공급하십니다. 창세기 2:7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했습니다. 사람의 육체 속에는 기(氣)와 혈(血) 두 가지가 생명체로 활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세상조건으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보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기와 혈에 공급되는 힘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마음에 작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구원을 얻었고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천국 갈 믿음을 가꾸며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잘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영적인 성과, 많은 영혼을 지옥 길에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을 때 내 육체의 사는 목적을 그것에 두어야 합니다. 생활로 본을 보이며 믿음의 봉사와 자기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헌신적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곧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두고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껏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그것을 옳게 여겨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의식화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의 의식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기를 힘쓸 때 그 은혜를 따라 구속해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8-9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사람으로 이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열심히 애써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762M나 높은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해저면입니다.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입니다. 이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못본체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처럼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쌍히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음 날 길을 떠나며 주막주인에게 돈을 주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참다운 사랑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드시고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의식과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천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17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강령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묶어놓은 것입니다.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 실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은 함께 나누되 그렇게 되어진 사연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며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38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잠언 19:17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네 주변에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네 몸처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네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삶의 성패(成敗)를 결정지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그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이웃에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www.cincijangro.com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우리들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목자,
담임목사님께서 성역에서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하여 우리 양무리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말씀 중심,
은혜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선한 목자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으시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행16:9)

담 임 목 사 님 을 모 십 시 다 .

California의 UC Merced가 있는 대학도시이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문 (Yosemite Gateway)인
Merced시의 **멀세드 사랑교회**

1. 제출서류 : PIF(Personal Information File)과 가족사진,
2분의 추천서, Faith Statement(신앙고백)와 목회비젼
2. 제 출 처 : 500 Buena Vista Dr. Merced, CA 95348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3. 제출기간 : 2월 28일(화)
4. 문 의 :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T.(209)205-8546

멀세드 사랑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및 온교인 일동
T.(209) 205-8546

144,000명에 대한 오해와 이단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성령님의 이름인 "보혜사"를 자칭하고,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인 "이긴 자," "만왕의 왕"이라고 추앙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잘못된 계시록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144,000, 즉 계시록 7, 14장에 걸쳐 등장하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그는 처음 이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로서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이 되어도 600여명 밖에 아니 되자, 추종자들은 모두 떠나고 40명만 남습니다.

이후에도 그의 거짓주장은 계속되어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재되어야 144,000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05년 5만 신도가 넘자 이들이 교적부로는 부족하고 "말씀의 인"을 맞아야 한다고 바꾸었습니다. 2010년이 되어 10만 신도에 육박하자, 말씀의 인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복음방 교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에 이르러 신도가 144,000이 넘어가자, 이제는 종교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144,000이라는 숫자는 신도를 유혹하기 위한 숫자였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 종교와 유사하게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144,000이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서 12는 12지파 혹은 12제자로서 선택의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선택수로서 12+12=24이고, 12x12=144입니다. 12를 두 번 더한 수나 곱한 수는 완벽한 선택의 수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10x10x10이라는 숫자가 곱하여졌으니, 이는 구원받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144,000이라는 숫자가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의 충만한 수를 구약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에 12,000명씩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온 세상의 성도들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4,000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실제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144,000에 드는 분입니다. 특별한 분파에 속하거나, 배타적인 헌신을 하거나, 별난 열심을 가져야 이 구원의 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힘이 아니라 어린양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는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낳은 열매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불면의 하나님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사람의 건강에 수면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한 잠이 있고 잠이 부족하면 뇌가 기억하고 한 달 전 못 잔 잠까지 자야 피로가 풀린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면부족은 기능성과 활력, 의욕, 정서 그리고 자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해지면, 자살충동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든지, 운전 중 졸음운전을 많이 한다든지, 책을 읽거나 TV 혹은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드는 현상이 정확하게 수면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잠을 4-5시간 이상 못 잡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4시간을 잔 후입니다. 피곤해도 잠은 더 안 오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새벽기도 시간을 지키기에 안성맞춤 체질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알람 없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알람을 두 개 세 개를 맞춰 놓고 잔 적도 있습니다. 결국 옆 집 사시는 잠이 없는 장로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 겨우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알람 없이 일어난 지가 15년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자는 체질로 변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면 2-3시간을 더 자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차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서 모자라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차가 바뀌면서 리듬이 깨어질 때 뇌가 기억하고 있던 모자라는 잠을 자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기능정지가 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잠을 주시나 봅니다.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중 방해 없이 쭉 7-8시간 자는 분도 보통 사랑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잠을 주무셨습니다. 피곤함, 목마름, 졸음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시121:4). 잠은 하나님과 인간됨의 구별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캘리포니아 시간에 지구 반대 쪽에서는 활동을 하고, 선교지에서 잠을 자는 시간에 우리는 또 일어나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시 44:23) 기도를 시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느라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선지자들과의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신을 향해 "너희 신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한다"고 조롱했을 정도로 잠을 자는 신은 가짜 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면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잡시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좋은 책, 새로운 책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책을 읽으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치료해 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고난을 잘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갖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책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책을 통해 인류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책을 통해 탁월한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책은 좋은 만남의 통로입니다. 다른 분이 쓴 책을 통해 좋은 만남을 가진 것처럼 제가 쓴 책을 통해서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좋은 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의문했던 해답들이 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책을 꾸준히 읽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입시 공부를 하다가 고생을 많이 한 까닭에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책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주는 유익을 깊이 깨달으면 책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책 읽는 법을 잘 배우면 책 맛을 알게 됩니다. 책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되려면 책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독서법이란 읽는 법입니다. 독서법을 배우면 책을 읽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읽고, 사람을 읽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독서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잘 읽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책 중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은 소생합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은 상한 심령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안식의 비밀, 행복의 비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밀, 건강의 비밀, 형통의 비밀, 기도의 비밀, 승리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읽는 책을 통해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Cr Zn Cr Zn 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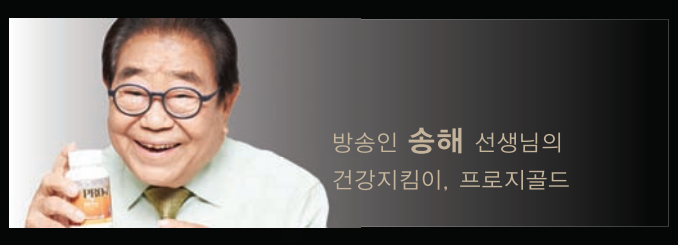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남경필 지사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안희정 지사 유승민 의원 이재명 시장 황교안 대행

한국 대선 주자 7명의 동성애 · 안보 관련 공약과 입장

남경필 · 문재인 · 안철수 · 안희정 · 유승민 · 이재명 · 황교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이전의 어떤 대선보다 높은 상황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의원(국민의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의원(바른정당),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상 가나다 순)의 동성애(성소수자)와 안보 문제에 대한 공약과 입장을, 그 동안 이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힌 것들을 토대로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이슬람에 대해서는 7명 모두 이렇다 할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었다. 향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아래 각 주자들의 나열 순서 역시 '가나다' 순이다.

1. 남경필 경기도지사(53, 기독교)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라는 슬로건을 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치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지난달 25일 자신이 소속된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그는 보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 협치와 연정, 공유적 시장경제,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탈피, 확고한 안보, 모병제, 수도 이전 등을 핵심 사안으로 외쳤다.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그는 보수정당 개혁을 요구해 온 소장파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기독교인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 교계 행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주요 교계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춰왔다.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신년 조찬기도회, 수원기독교총연합회 수원시 지도자 조찬기도회 등에도 참석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해 왔다.

▷동성애: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 이후 그는 한 일간지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독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동성혼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동성혼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남경필 지사 측은 이 문제와 관련, 본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도 전해왔다.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 역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찬성하는 그는 "북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대화도 함께해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주장했다.

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5, 천주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주교 신자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양동이를 들고 정기적으로 배급을 타야했다. 내가 양동이를 들고 가면, 수녀님들이 귀엽다고 자주 과일과 사탕을 주셨다. 인자한 수녀님들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표는 천주교에 귀의했고, 현재까지 천주교를 믿고 있다. 세례명은 디모테오이다.

▷동성애: 문 전 대표는 동성애와 관련해 수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7년 한겨레 신문 주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언급한 인권기본법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괄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한 그의 백문백답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70번 문항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71번 문항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꼭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결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인권 연대단체인 무지개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문 전 대표는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이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해외의 동성애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레인보우 팩토리를 설립해 동성 애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조광수 감독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입장에 다소 변화가 온 듯,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한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문 전 대표는 최근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걸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작년 10월 9일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며 조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기존 남북합의 실천·이행을 합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진보적인 안보관을 드러냈던 문 전 대표는,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국정원 개혁을 언급하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2020년까지 50만 병력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다.

3. 안철수 의원(56, 무교)

▷동성애: 작년 3월 12일 안철수 의원이 당시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은 진보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들이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 등의 명목으로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서를 발표했을 때,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 안철수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외교·안보의 판단 기준은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 일단 정부 간에 약속한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뒤집는 건 힘들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는 철폐보다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 공감을 얻어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8일 전주를 방문한 안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아래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군에 입대 가능한 젊은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순하게 군 복무기간 단축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 안희정 충남도지사(53, 무교)

▷동성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1월 14일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종교적 교리든 이념이든 각각의 정체성에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며 "논쟁을 해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철저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2014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다.

▷안보: 안 지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간 합의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일단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한미 양국간 합의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존중돼야 하지만, 무기로서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사드의 효용성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미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전시작전권마저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뒤집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다"

후보들 이슬람 정책은 아직 검증 없어

고 했다.

이어 "사드는 미국 내에서도 무기체계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다"면서 "사드 문제를 찬반 정치 공간에 들여놓을 것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의 군사기술적 측면에 대해 앞으로 배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현재 북핵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튼튼한 자주국방력에 기초해 대북 대화채널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퍼주기는 그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의 일이고, 동등하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공동이익을 위해 교류는 교류대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은 조건없이 수호해야 할 가치"라며 북한 인권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땅 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했다.

5. 유승민 의원(60, 불교)

'정의로운 보수 유승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보수통합과 외연 확장 전략을 펼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이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에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시대적 책무로 꼽으며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 법치를 바로 세우며, 국가는 제도개혁과 재정부담을 책임지고 기업은 잘못된 문화를 고칠 것을 주장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의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신자인 그는 출마선언 이틀 전인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본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여 조언을 듣기도 했다.

▷동성애: 이 문제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은 지난 2014년 총 4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안(동성애법)에서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인권교육지원법안은 동성애 조장 법안이라는 이유로 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유승민 의원은 최근 한 언론에서 "동성애 차별은 반대하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 유 의원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한·미동맹을 안보의 초석으로 보고 "미국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현안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동맹을 더욱 굳세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6. 이재명 성남시장(54, 기독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15년 가톨릭프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줄 경우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 모든 갈등은 치유되는데, 종교 갈등은 그렇지 않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종교가 정치에 간여한다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는 종교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어 "종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는 선택의 문제"라며 "종교는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다. 그게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라고 덧붙였다.

또 "선거에 종교를 활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특히 "현재 개신교의 활동에 대해, 종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일부 대형 교회의 일탈이 눈에 띄어 국민들의 불신과 무시를 받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다수의 개신교 지도자 및 성도는 현장에서 묵묵히 복음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나쁜 것이 대표적으로 잘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동성애: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그걸 소수라고 해서, 다수의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위에 다수의 입장을 관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예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공격할 일은 아니다. 존재는 인정받아야 한다. 인권선언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었나. '그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지지하고 말고가 아니다. 저는 이성애를 지지한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동성애가) 있는 걸 인정한다. 그렇게 봐야한다. 이걸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왜 세상이 꼭 하나만 존재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명사회"라며 "'나와 다른 건 틀린 거다'라는 게 매우 전제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후진 국가다. 인정하는 것과 지지하는 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보: 이 시장은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가 사실상 종속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 시장은 또 사드 배치가 "대한미국의 안보와 미래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치"라며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에 종속되거나 굴욕적 태도를 취하면 이 나라가 존속하기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이처럼 이재명 시장은 그 동안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익 중심 외교 등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故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선을 잇는 화해와 협력, 대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종북'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61, 기독교)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독교 신자다. 사법연수원 시절에 신학 공부를 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다. 〈지혜의 일곱 기둥〉, 〈교회와 법 이야기〉 등 기독교 관련 서적도 출판했다.

▷동성애: 지난 2015년 한기총을 방문했던 황 권한대행은 동성애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당시 이영훈 대표회장이 황 대행에게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성결혼 문제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총리께서 힘을 실어 달라"고 했으며, 이에 황 총리는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안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적 가치로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사드 (포대) 1개를 배치한다고 북한의 핵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영 · 이지희
강혜진 · 김은애 기자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연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김인식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새해감사부흥성회

오레곤 밴쿠버 새해감사부흥성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전도 사명 일깨워

오레곤 밴쿠버 한인교회 연합회가 주최한 "새해감사부흥성회"가 김기동 목사(LA 소중한교회 담임목사, 고구마 글로벌 미션 대표)를 초청해 지난 1월 19-22일(목-주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지역 한인교회 연합회는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 밴쿠버 지역의 한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4일간 한인이 밀집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새해감사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첫째날 1월 19일(목)은 유진 지역의 유진한인장로교회(김건택 목사), 둘째날 20일(금)은 밴쿠버 지역의 밴쿠버한인장로교회(지선묵 목사), 셋째날 21일(토)은 강동 지역의 온누리성결교회(강재원 목사), 넷째날 22일(주일)은 강서 지역의 집회로 오레곤벧엘장로교회(이돈하 목사)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신년감사성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라는 주제로,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가 4차례로 첫째날: "염려입니까? 믿음입니까?"(마6:31-34), 둘째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합3:1-2), 셋째날: "자신입니까? 이웃입니까?"(마22:37-40), 넷째날 "Being, Doing, Telling"(창1:28)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교회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는 이돈하 목사는 "매년 하는 감사성회를 한 곳에만 1회적으로 하면 2시간 거리 안에 산재된 오레곤 주와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유진, 밴쿠버, 해피 밸리(강동), 비벌튼(강서) 지역으로 하루씩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연인원 700여 명 이상이 모인 성회가 되었다. 특히 오레곤 주는 3만 명 정도의 교민 중 실제로 교회 다니는 성도의 숫자는 3천 명이 되지 않아 9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미국 내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를 모시고 한 이번 집회는 온 교회들이 연합하여 전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집회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연합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집회에서 설교하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무조건 잘되는 게 축복? 고난으로 변장된 축복을 기억해야"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 주제로 연합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성회 성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를 초청해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라'를 주제로 열린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성회가 성료됐다.

3~5일까지 진행된 집회는 매 시간마다 갈급한 성도들로 본당을 가득 채우는 것도 모자라 보조의자까지 펴야 했다. 예배 전 보조의자까지 가득차 본당 안에 들어가기 힘들어지자 한 참석자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유투브를 통해 들어왔는데 직접 듣고 싶어 찾았다. 뒤에서라도 서서 듣고 싶다"며 요청하기도 하는 등 예배 시작 전부터 성전을 가득 매운 집회는 최근 애틀랜타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3일(금) '하나님과 대결한 자의 어리석음'(요나1: 1-4)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찬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했고, 임한 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고 목사이다. 성숙한 크리스천은 말씀을 기대하고, 임하기를 사모하며 임한 것을 삶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 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택배기사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말씀이 임하면 참 선지자고, 목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어갔다.

특별히, 그는 일반적인 예화가 아닌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내는 간증을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자 해, 많은 이들이 더욱 공감하고 은혜를 받는 듯했다.

이 목사는 "내적 치유가 안된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춘기'다. 요나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니느웨에 대한 상한 민족적인 감정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에 물고기가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요나를 삼킨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영문도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힘들어 질 수 있다. 믿는 크리스천들이 주변에 본이 되고 힘이 되어 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권면하며 "불순종한 요나는 그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해결 되지 않은 감정은 영적 고통을 받게 한다. 왜 용서가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일이 잘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나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인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임을 다시금 인식하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야 한다.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은혜로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스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한국교회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3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목회자로, 대형교회 증축 포기와 사회 환원 선언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저서로는 〈붙들어 주심〉, 〈처음 마음〉, 〈삶으로 증명하라〉, 〈보호하심〉 등 다수가 있다.

윤수영 기자

美 복음주의계 보수 연방대법관 지명 대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연방대법관 후보에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50) 콜로라도 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법관 후보 21명을 정해 놓고 지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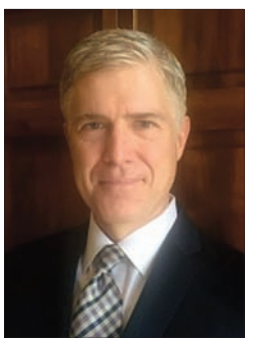
뉴욕타임즈(NYT)는 "고서치가 안토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적 이념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스칼리아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법관에 임명된 9명 중 유일한 흑인이자 가장 보수적인 클래런스 토머스(68) 대법관 다음으로 보수적인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파인 고서치가 연방대법관에 지명됨에 따라 동성결혼, 낙태 등 진보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의 법적 소송의 표적이 되는 등 종교 자유의 침해 논란까지 겪은 미국 교계는 보수적인 연방대법관의 임명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처치리더스닷컴은 "복음주의자들은 아이비리그 출신의 준비된, 그리고 두 아들을 둔 성공회 신자인 고서치 판사를 추켜세우고 있다"면서 "그의 이력에 기초할 때,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보수적 발자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에 반대해 온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도 이번 결정에는 박수를 보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고서치 판사는 뛰어난 인물이며, 헌법적 원리주의의 수호자로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고서치는 동성결혼 이슈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웹사이트 헤비닷컴은 "고서치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건을 맡은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이슈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 ⓒ위키피디아

보도에 의하면, 그는 2005년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서 딱 한 차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진보주의자들이 동성결혼과 같은 이슈를 공직자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법정으로 끌고 와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엇보다 진보주의자들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들이 동성결혼 등의 이슈를 다룰 때, 대중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 법원의 판결에 의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정치적으로 위축돼서 더욱 고통 받을 수 있다"면서 "진보주의자들이 잘못된 열정을 갖고 동성결혼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낙태, 조력자살, 안락사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서치는 2006년 출간한 저서 '조력자살과 안락사의 미래'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치를 지니며 타인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2013년에는 기독교 업체 하비로비 등이 직원들에게 피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美 정교분리 관련 세금법 존슨 수정조항 폐기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교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존슨 수정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존슨 수정 조항을 없애고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해서 신앙을 대표하는 이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내 정부는 종교 자유의 수호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국가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부자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수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세금법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트럼프가 약속한 것처럼 존슨 수정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어온 기독교 보수교단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과정에서도 교회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발언 허용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 수정 조항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강혜진 기자

이라크 갈데아교회 기독교인 재정착 지원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갈데아교회가 나섰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가톨릭헤럴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에르빌의 바샤르 와르다(Bashar Warda) 대주교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떠났던 마을을 실제로 재건할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났던 이들을 내적으로 위로하며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 박해감시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처음부터 이 운동을 주도해왔다.

ACN은 니네베 평원에 있는 마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라크를 위한 '마샬플랜'이라고 언급했다. 마샬플랜은 세계대전 2후 미국의 지원으로 이뤄진 서유럽의 대량 재건축 계획을 의미한다.

ACN의 대변인 안드레즈 할렘바 신부는 "재건축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파괴된 현장을 담은 수 천장의 사진들을 모아 분석한 후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팀들은 위성사진들의 도움으로 니네베 평원에 있는 각 마을의 집들이 IS에게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할렘바 신부는 "재건축이 꼭 벽돌과 진흙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법적인 이슈들의 해결도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재건축에도 동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프라이부르그–루째른 –취리히–로텐부르크 프라하 – 드레스덴 – 비텐베르크– 라이프치히 – 아이제나흐 – 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덴베르크 & 라이프치히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시카고 – 인디애나 폴리스 – 신시내티 – 인디애나폴리스 – 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퀘벡 최고급 샤토 프롱트낙 호텔 숙박
캐나다 동부 4박 5일
▶ 매주 금 $1,299 (항공포함)
– 올드 퀘벡 관광
– 토론토 시내관광 – 세인트 로렌스 마켓, 의사당
– 오타와 : 의회 연방의사당 리도홀(총독관저)

일본 노팁! 노옵션! 항공포함!
북해도 6박7일
▶특별출발 2/15 $3,199
– 삿포로 특식 3대게 무한 리필 특선!
– 호수마을 도야에서 온천욕
– 동경오다이바, 신주쿠 거리

알래스카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
오로라 기차 여행 4박5일
▶출발 : 목요일 $1,300 +항공
–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 페어뱅스 역사 박물관, 산타마을 등
– 지구 최북단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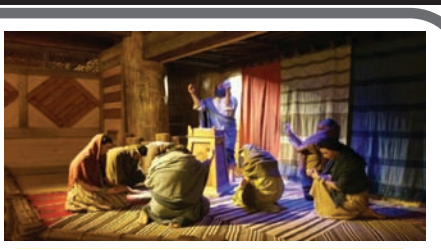
한국 유일한 안보관광 투어
2017 재향군인가족 안보 산업 시찰단 5박6일
▶ 4/10 $740 +항공
포항 – 울산 – 경주 – 평창 – 고성 서울 – 평택 – 서울 – 철원 등

–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님께 특별 할인 해 드립니다. – 푸른투어를 방문하시는 모든분께 스피팔래스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기존 세도나일정과 완전 차별화된 코스
세도나 기차 /미티어 크레이터 4일 $399 ▶2/20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자연석조 다리를 만나보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모뉴멘트 벨리 4일 $399 ▶2/27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 /스위스.독일.체코.프랑스 8일 $2,600 (항공포함) ▶4/24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항공포함) ▶4/17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미서부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❶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❷ 디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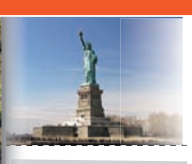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토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매일 $99 (2인이상, 한인가이드)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할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7일 $829 ▶3/24, 4/8, 4/2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미동부

"가주교육신문과 함께하는 봄방학 특선"
명품 IVY 리그 5박6일 $1,399
– 예일대학에서 정태현 박사과정 특강 1시간 ▶3/28 4/4

5박6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존스홉킨스/콜롬비아 ▶매주 화/토 $1,399
7박8일 브라운/예일/하버드/MIT/프린스턴 유펜/콜롬비아(나이아가라) ▶매주 수 $1,499
①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3명 이상 출발

❶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❷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8일 (미동부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알려진 암반
◀ 교회의 내부 모습과 예수님과 베드로를 묘사한 동상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1)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베드로 수위권 천주교회로 가는 길

지난 편에 함께 살펴보았던 오병이어교회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베드로 수위권 천주교회(Church of Primacy of St. Peter)가 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나와 도보로 5분 정도를 걸어가면 이 교회의 입구가 있고 이곳에서부터 바다가 가장자리에 있는 교회까지 정원길이 나있다.

이 교회가 있는 차 길 건너 언덕 위로 길이 나있는데 이 길로 올라가면 산상수훈의 교훈이 있었던 팔복교회가 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는 서쪽으로 2마일 떨어져 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는 갈릴리 가나를 지나 이곳까지 이르는 산지와 평지로 이루어진 고대 길이 있는데 지금은 포장된 도로가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만들어져 있다.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가는 길은 가나를 지나 65번 도로를 만나 북쪽으로 진행하다 807번 도로를 타고 미그달 지역을 지난 후, 90번 도로를 타고 타브하 지역으로 가는데 이곳으로 가면 약 50분 가량 걸린다.

또 77번 도로를 통해 티베리아스 시내를 관통하여 오는 경우도 있고, 60번과 65번 도로를 경유하여 돌아오는 거리도 있는데 이 경우는 1시간이 소요된다.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아풀라 시내와 다볼산(변화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베드로 수위권 교회의 역사

베드로 수위권 교회는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기념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Mensa Christi(주님의 식탁)이라는 바위와 주변의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Primatus Romani Pontificis Papal Primacy는 마태복음 16장 18-19절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교황 수위권이다. 교황은 모든 주교들의 수장으로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를 설립하고 간섭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있었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베드로(반석이라는 뜻)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아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다.(요1:42)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11절에서 바위는 그리스도라 말하였고, 베드로는 제자 가운데 기둥이 되고 그 기둥 가운데 하나라 말씀하셨다.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4세기부터 로마교회 주교를 교황같이 생각하면서 수위권이라는 교리를 만들었다.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은 로마 주교를 위한 것이라 하였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 교황이 으뜸 사도로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였다. 결국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 수위권의 교리를 완성하였다.

이곳의 교회 이름도 이와 같은 연유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 명칭하였고, 이 교회의 경내 정원에는 역대 교황의 이름과 제위 기간이 명시된 그림이 있다.

이 교회는 1263년 무슬림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1933년 작은형제회(Franciscan)라는 수도회에서 고대의 교회 터 위에 현 교회를 세웠다. 석회암 식탁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밖으로는 6개의 하트 모양의 돌계단을 만들어 12제자를 상징하였다.

이 교회의 의미

베드로는 제일 먼저 제자라 불리었고(마4:18)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중요한 장소에 동행하였고(마17:1, 26:36) 항상 아끼셨다. 그의 생애는 영광(마16:18)과 굴욕(마26:75)으로 점철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행되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마26:35)고 다짐했던 그가 결국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 심문과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세 번을 부인했고, 새벽 닭 울음과 함께 통곡하며 갈릴리로 돌아갔다.

디베랴 바다(갈릴리)에서 본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다른 제자들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밤새 아무 것도 잡지 못한 그들 앞에 주님이 바닷가에서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다.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이 153마리나 고기를 잡아서 의기양양하게 바닷가로 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올라온 육지에는 숯불이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다. 주님은 조반을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더 사랑하는냐?"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 다시 두 번째로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베드로는 대답한다. "주여, 그러하외다." 세 번째 다시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말씀으로 세 번이나 물으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용서와 용기를 주신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때 천국의 열쇠를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마17:1) 바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떠났으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설명하여 준다. 십자가 사건 이후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부활 후 3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어 사람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키우는 목자로 다시 세우신다. 목자의 길을 갈 때 이전 성품의 사람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띠 띠우는 데로 가라 하신다.(요21:18) 베드로의 사역 뒤에 오는 죽음과, 죽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인생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며 바뀌어진다. 이제 조용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될 대사명을 감당키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갈릴리 바다 북서쪽 기슭에는 검은 현무암으로 지은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1933년에 건축되어 지어 지금까지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던 암반이 있다. 이 암반에는 멘사 크리스티(Mensa Christi,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의 라틴어)라는 말이 쓰여 있다. 그리고 밖에는 베드로에게 수위의 권세를 주는 동상이 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마르띠니라는 사람의 작품이다, 마태복음 16장13-20절을 표현하고 있다. 그 뒤로는 갈릴리의 푸른 물이 넘실대고 있다.

이 동상을 보고 있노라면 거리가 약 50간(150m)쯤 떨어진 곳에서 제자들이 함빡 웃음을 지으며 고기를 높이 들고 자랑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이 오버랩 된다.

필자는 이 교회를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 하지 않고 새사명교회라 부르고 싶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연약한 한 인간을 감싸주시며 능력과 권세를 다시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의 흔적이 따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계속〉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A형 스탠드배너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사 박성근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 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 송재호 칼럼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과 기독교신앙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지난 며칠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항의시위는 지난 1월 28일 언론들이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국민들과 난민들이 공항에 억류 구금되거나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의 명령과는 다르게 유예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난민들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미국 공항에 도착 후 억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에도 사인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추방과 취업비자와 원정출산에 문호도 축소하는 법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12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기간 동안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계획이며 "미국은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조치에 관하여 많은 이민자들과 교민 모두의 반응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 간에도 지금의 행정명령이 과연 미국이 기독교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한 조치인가 하는 의구심과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했던 "세계주의"(Globalism)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또는 "미국주의(Americanism)"를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회복하고 그동안 고립되었던 대외정책과 경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19세기 말 미국이 아시아 금지구역(Asiatic Barred Zone)을 설정해 아시아인의 미국 이민을 불허하고, 1924년 이민 쿼터제를 통해 교묘하게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이민을 배척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의 목적도 자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용창출과 미국의 경제적 부흥에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경제대국으로 세계 제일의 기독교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목숨과 같이 지켜왔던 청교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4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1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려면 자국 우선주의와 자국민 보호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조치보다 모두에게 차별 없는 기독교신앙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미국 언론들과 세계 각국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난민 행정명령" 서명 뒤 미국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혼돈, 혼선, 분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법률가, 학계, 기업 최고 운영자들, 인권 운동가, 그리고 심지어 워싱턴 관가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 같은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계속 일해도 될지 의구심을 가진 관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는 미국 내 기독인들의 기대와 후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원의 90%는 기독교인이고, 이번에 트럼프를 도운 사람들은 미국 기독교 중요 공중파 방송국 관계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후 성탄절 인사가 종교편향이라는 이유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리던 것이 "크리스마스"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존슨 개정을 폐지하여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여 교회에 목소리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중동 기독교인 대학살과 이슬람 테러 단체 ISIS의 기독교인 대학살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제법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 신념도 깊은 대통령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는 순간이다. 복음은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 하여 억압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 [제임스 구 교수의 기독경영 칼럼 2]

기업의 경영

제임스 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I. 경영학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은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이다.

경영학의 연구 분야는 넓게는 국민 경제, 좁게는 회사에서 발생되는 실제적 문제들이다. 국민 경제와 기업의 발전, 즉 효율성과 수익성의 향상을 위한 계획이나 조직 체계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 경영학이 직접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경영학은 경제학의 응용학문이다. 경영학의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1)경영은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계획수립, 결정, 평가와 같은 일련의 활동(activities and operations)들이 계속된다. 2) 경영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정보 등 여러 자원을 '모으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3) 경영은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활동이다. 즉 경영이 이루어지면 어떤 활동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모든 활동은 목적 적합한 것이며 방향성이 있다. 4) 경영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II.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은 초기 설립 시에 세운 목표를 달성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을 경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영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기 아니기 때문에 활동의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경영의 순환과정(Business management cycle)이라고 부른다.

경영의 순환과정은 당초 세웠던 계획의 실행결과를 새로운 계획에 계속적으로 피드백 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순환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plan)단계- 계획단계는 조직이 달성하려는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경영활동이다.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실행(do)한다.

2.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계획된 바에 의하여 리더의 지휘와 조정에 따라 과업을 시행한다.

3. 평가와 피드백- 경영활동의 순환과정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는 평가는 경영활동의 실행결과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나타났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평가결과는 순환과정에 의하여 다음의 계획 수립 시에 피드백되어 반영된다.

경영의 순환과정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 또는 업무를 대상으로 이어진다. 기업에서의 순환과정의 대상이 되는 과업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치로 정리하는 것 등이 있다. 즉, 처음부터 ①재무관리 ②인적 자원 관리 ③생산·운영 관리 ④마케팅 관리 ⑤ 회계 ⑥ 경영 정보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일반적인 경영의 대상인 기업의 이익추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III. 기독경영

기독경영은 기독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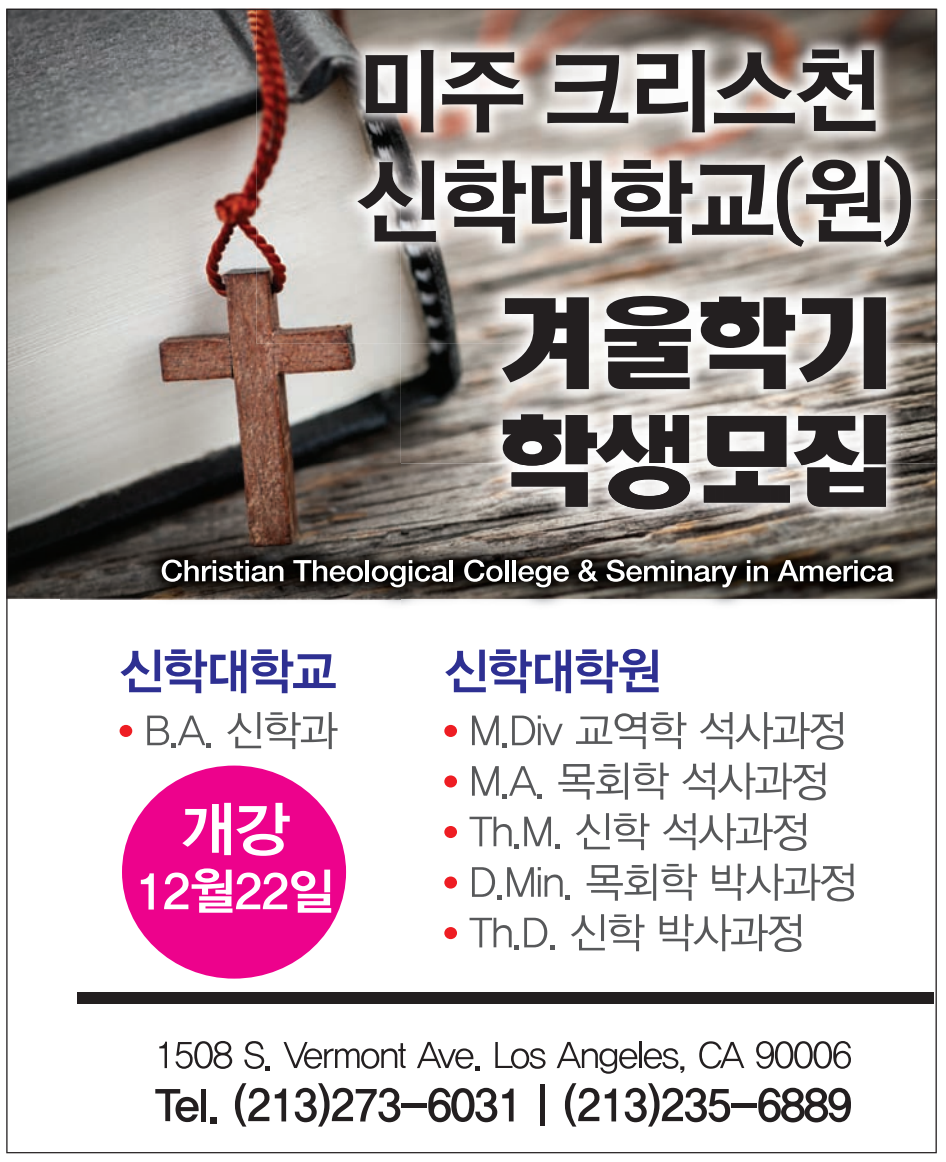
기업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경영하여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신음케 했다.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고갈시키고 있으며, 각종 공해를 배출하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락은 개인 및 조직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쳐 기업활동을 왜곡시켰으며, 이런 타락의 영향은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손상시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자연을 향한 기업의 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기업의 회복이다. 이 회복은 타락의 영향으로 왜곡된 것을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타락으로 왜곡된 사람과 조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 의미(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자연을 향한 목적)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독경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다.

〈계속〉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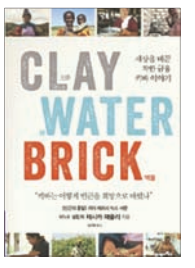
금보다 더 귀한 것
바실레아 슐링크 | 국민북스 | 400쪽

독일 개신교 영성 공동체인 기독교마리아자매회 창립자인 바실레아 슐링크(M. Basilea Schlink, 1904-2001)가 쓴 365일 묵상집이다. 짧은 성경구절과 짧은 묵상이 들어 있으며, 모든 내용이 영어로도 담겨 있다. 저자는 1960년대 초 이집트 시내산을 방문해 산 위에 머무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묵상집을 썼다고 한다.

빈자의 미학
승효상 | 느린걸음 |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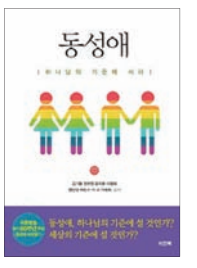
이 시대 대표적인 건축가의 데뷔작으로, 건축학도들의 '교과서'이자 인문서 독자들에게 '숨은 고전'으로 불린다. 출간 20년만이자 절판 10년만에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 '비움'과 '절제'라는 자신의 철학을 녹여낸 저자의 초기 건축물 11점을 만날 수 있고, 동서고금을 아우른 위대한 사유와 예술작품, 건축물들을 엄선해 담아놓았다.

진흙 물 벽돌
제시카 재클리 | 21세기북스 | 336쪽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P2P 소액대출 웹사이트 '키바'의 공동 창립자인 저자의 자전적 이야기. 키바는 빈곤 완화를 위해 '대출'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창업을 원하는 빈민들의 사연을 게시하면 전 세계에서 기부를 받아 소액을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저자의 이런 여정에는 '기독교 신앙'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동성애
박만수 외 | 비전북 | 168쪽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정리했다. 저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따라서 진정한 인권의 추구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동성애를 찬성 또는 옹호하거나 동성애에 동조하는 것은 인권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명하셨는지, 그리고 의료·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초대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한국교회의 교리교육 이야기

〈교리교육의 역사〉의 저자인 정두성은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교리 교육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첫째, 저자는 교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전체 교회의 역사를 탐구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교리교육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확립했으며, 학자가 탐구한 요체를 제시했다. 신약성경과 고대 교회에서 종교개혁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까지 연결되는 전체 개요를 제시했다.

역사적인 교회의 도식을 소개하기 때문에, 〈교리교육의 역사〉는 독자에게 유익을 준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사적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역사적 연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두성은 교리교육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국교회까지 한 교리로 연결된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진리를 시대에 따라 적용하는 '준용(準用, mutatis mutandis)'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교리교육의 역사〉를 매우 기쁘게 추천하는 이유는 31쪽에서 4개의 공교회 결정을 명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니케아(325), 콘스탄티노플(381), 에베소(431), 칼게돈(451)의 결정들을 한 문장에 배열한 연구자는 거의 없다. 또한, 네 개의 신경의 원천을 사도신경으로 제시했다(31쪽). 저자는 사도신경에서 4개의 신경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카테키즘)를 연결시켰다.

정두성 | 세움북스
295쪽

둘째, 〈교리교육의 역사〉에서는 중세 시대가 자연스럽게 공백을 갖고 있다. 저자는 중세 시대를 암흑기로 정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종교개혁 신학을 고대 교회의 부흥, 즉 교리교육의 재생(renewal)으로 보았다.

저자는 고대 교회의 교리교육을 수직적(입문), 종교개혁의 교리교육을 수평적(신자 교육)이라고 내용별로 정리해 신자를 교육하는 형태로 세웠다. 그래서 교리교육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항목임을 제시했다.

셋째, 〈교리 교육의 역사〉는 결국 한국교회까지 연결시켰다. 한국교회는 초기 교리문답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런데 1970년대 무렵부터 교리교육이 사라졌고, 함께 교회에 대한 신뢰성도 몰락했다.

정두성 박사는 현재 한국교회의 쇠퇴 상황을 교리 교육의 부재로 평가한 것이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성장은 추락했는데, 이를 교리교육의 부재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연관시켰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찾는 방안을 체계적 교육 활성화로 제안했다. 세례를 받을 때 체계적인 수직적 교리교육과 입교 후의 수평적 교리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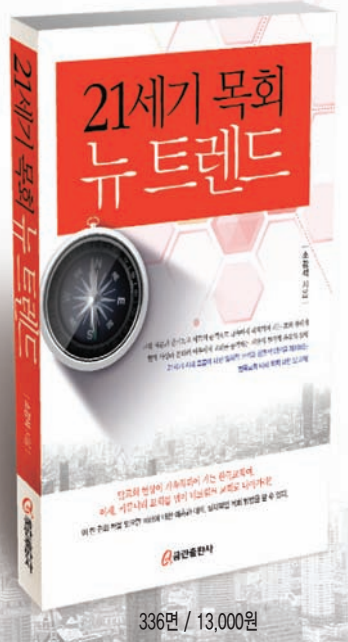
정두성은 〈교리교육의 역사〉에서 교리에 대한 좋은 이해와 교육 방안에 대해 역사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정보들을 제시하고, 교리 교육의 회복과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리교육의 역사〉를 읽는 독자는 교리에 대해,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의 위치에 대해, 종교개혁 시대에 교리교육에 대해,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 바른 정보를 접하게 된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강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고난의 때 "침묵하는 주님"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이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사일런스〉 중 한 장면

'소설'은 인기가 있으나, '기독교 소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강해, 기도문, 성경, 간증문, 설교문, 만화…, 다양한 주제로 책을 분류해 놓았지만 '소설'은 없습니다. 시나 에세이, 소설을 묶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할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기독교 소설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고,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아주 놀랍습니다. 1982년 5월에 초판이 나온 이후 2002년 9월까지 47쇄를 찍었고, 그것도 모자라 2003년 1월 개정판을 냈는데 2015년 12월까지 26쇄를 더 찍었습니다. 영화로 보자면 사람들이 덜 찾는 '다양성 영화'가 블록버스터 영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흥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소설의 인기는 영화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사일런스(silence)〉라는 이름으로 영화를 제작했지요. 무엇이 기독교 출판 시장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소설이 인기를 끌게 하는 것일까요? '감(感)'과 '상(想)'의 대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상(想): 우선은 간략한 내용부터 알아야겠지? 17세기 경 기독교(엄밀히 따지자면 천주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신부님들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을 믿게 된 일본인들의 죽음과 피해, 갈등과 번민을 다룬 책이야.

감(感): 이 책은 제목부터 의미심장해. '침묵',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제목을 접하면 이 책을 집을 때까지 조용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책을 펼치라는 은근한 강요와 압박이 느껴져.

상(想): 맞아. 나도 감(感)의 의견에 동의해. 단순한 제목이 아니지.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침묵의 이미지와 내용에서 전하는 침묵의 주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 다 읽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되는 침묵의 메시지까지 생각하자면, 아주 놀라운 제목이야.

간단히 설명해 볼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침묵은 감(感)의 느낌대로 '허다한 말과 너의 복잡다단한 생각을 그치고 조용히 책을 읽어라!'로 다가오지. 내용에서 전하는 침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에 대한 물음과 원망이 있지.

침묵은 금(金)이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침묵은 '답답함'이 되지. 내용에서의 말하는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답답함'이지. 물론, 생과 사를 오가기 때문에 단순한 답답함이 아니라 절규의 답답함이야. 마지막으로 다 읽고 나면 '왜 하나님은 침묵했던 것일까?'를 묵상하면서 침묵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 알게 되지.

감(感): 소설로 봤을 때, 첫 장부터 집중시키게 하지. 지도 그림을 옆에 두고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뭔가 강렬한 기운이 전해져. 처음엔 그냥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이 글이 아주 세다는 걸 알게 되었어. 뭐랄까? 처음에 별 효과도 없는데 시간이 지나 장 속에 녹아들면서 효력을 나타내는 알약과 같다고 할까.

상(想): 이 책은 어찌 보면 일본 선교사들의 시련을 담은 간증문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분명한 소설적 장치를 담은 첫 장면에서 결과를 먼저 보여주지.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크리스트반 신부가 '구멍 매달기' 고문을 받고 배교를 맹세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배교를 했던 이유에 대해 추적하는 과정을 담았어. 그러니 독자들은 가랑비에 서서히 옷이 젖는 게 아니라, 소나기로 흠뻑 젖고 마는 거지. 완전히 젖은 상태에서 읽게 되니 이야기 속으로 쉽게 빨려들고 마는 거야.

이건 작가가 이야기에 자신이 있을 때 쓰는 방법이야. 봉준호 감독이 2006년도에 만든 영화 〈괴물〉에 보면 당시 우리나라 CG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괴물의 모습을 후반에 보여줄만 할텐데도 이야기에 자신이 있으니 괴물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어. '이제 너희가 궁금해하던 걸 봤지?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집중하렴!' 하는 것과 같은 작법이야.

감(感):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묻지. 그것이 지루할 수 있으나, 공감이 가면서 가슴을 울려. 나를 울리는 대목이 있어. 조금 길지만 소개하고 싶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 비참한 농민들에게, 이 일본인들에게 박해와 고문이라는 시련을 주시는지요? 아니, 기치지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다른 무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20년, 여기 어두운 일본의 땅에 많은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 차고 사제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을 보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기치지로의 어리석은 원망에 그러한 물음이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85-86쪽)'.

엔도 슈사쿠 | 공문혜 역
홍성사 | 308쪽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신부는 하나님께 분노하며 생각하지. '당신은 언제까지나 침묵을 지키셨지만, 당신이 언제까지나 침묵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다(163쪽).'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이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想): 이 책은 결코 지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이야. 이 질문은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어떤 답을 내릴까?'를 중심에 두고 읽게 되니, 끝까지 읽게 되는 효과가 있어. 이건 소설로서 아주 중요한 장점이야.

감(感):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환난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 책이 내린 결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독자도 있을거야. 나는 좋았어.

상(想): 나도 마찬가지로 좋았어. 이 책은 간증문이나 설교문이 아니라, 소설이기 때문이야. 독자들은 다 읽고 나서 자기만의 답을 내릴거야.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어떠한 자기만의 답도 오답이 될 수 없을거라는 확신이 들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09년 5월 청년시절 청년 주보에 썼던 칼럼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입니다. 20살 중반 재수 시절 모르는 문제를 잘 가르쳐 줬던 학원 선배가 어느날 침묵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혼자 푸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길 원했던 뜻이 있었음을 알고 썼던 글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갖는 불만 중 하나는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말 중 하나가 '주님께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하오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건, 이런 침묵 속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해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못 미치며, 우리가 아무리 넓은 사랑을 지녔다 해도 모든 만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주님의 침묵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분노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미약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 분이시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야 할 겁니다. 어려운 시기, 답답한 시기, 그래서 주님의 침묵이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알아야 합니다. 침묵 속에도 광대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기에나 침묵으로 자신의 사랑과 섭리를 증명해냈다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프다고 고함칠 때조차,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원망스러울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하시며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형벌을 당한 사건으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없었다면, 답을 바로 내렸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를 젓게 됩니다.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의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침묵으로 일어난 부활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서평가 이성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February 9, 2017 Vol. 88

Korean Immigrant Church Looks to New Beginnings with '1.5 Generation' Senior Pastor

BY RACHAEL LEE

The new year truly marked a new beginning for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as they ushered in a new senior pastor who would lead both the Korean ministry (KM) and the English ministry (EM) of the church.

Rev. Won Lee, or 'Pastor Won,' as he's affectionately called by the members of the EM at the church, took on the lead pastoral role on January 1. For a lead pastor position of a Korean immigrant church, Lee is an unconventional choice. While most senior pastors of Korean immigrant churches are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Lee spent most of his formative years in the U.S. as he immigrated from Korea to the U.S. at the age of 11. He also spent many years in ministry in churches with mostly white congregations, such as his lead pastoral role at First Baptist Church of Long Beach.

But Lee is not without experience 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He served for eight years at Junimseun Church as the EM pastor, and started the EM at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These experiences gave Lee a firsthand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presents, as well as the variety of ways that pastors could confront them. During his time at Junimseun Church, Lee was able to witness a significant growth in numbers in the EM, from the four members that he started out with, to 200 members by the time he left. He was also able to experience the different ways that the KM and EM could collaborate and form a relationship, such as having joint services multiple times each year.

Lee said one of the bigger challenges of taking on this position was that of preach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but added that he finds himself becoming more and more comfortable with preaching in Korean as the time goes on.

There are also aspects that Lee hopes to revitalize as the new senior pastor for both ministries. For instance, he hopes to see a growth in the prayer lives of his congregants, and has been encouraging the members to come to early dawn prayers. He also hopes to make the EM a multi-ethnic congregation that reflects the demographic of the Garden Grove community. The EM has been trying different methods of outreach to welcom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the church, such as having basketball outings and using evangelism tracts.

Lee currently preaches in Korean during the second service, and in English during the third service. Pastor Chun Lee, who is also the worship pastor of the church, preaches during the first service.

Rev. Won Lee took on the role of senior pastor at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ousands Attend 'Send' Conference, Challenged to 'Redefine' Their Lives for Christ

BY RACHAEL LEE

Southern California was host to a lineup of well-known speakers and Christian artists for the 'Send'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February 2 to 3 in Long Beach.

The conference, which was hosted by two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mission agencies: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and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featured speakers such as David Plat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Kevin Ezell, president of 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Russell Moore, president of the SBC'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Francis Chan, author and church planter in San Francisco; D. A. Horton, author and pastor of Reach Fellowship; Jeff Iorg, president of Gateway Seminary; Mark Dever, president of 9Marks and pastor of Capitol Hill Baptist Church; and Trip Lee, author and hip hop artist. Phil Wickham, Austin Stone Band, and Rend Collective were among those who led worship during the conference.

The aim of the conference is to mobilize people of all ages and contexts — the whole gamut of "students, business people, soccer moms, church planters, grandmothers, lawyers, pastors, baristas, contractors," as the conference website states — to live with a missional purpose wherever they are, and wherever they may go. Almost 4,000 attended, according to Baptist Press.

In particular, as the conference focused on the theme, 'Redefine,' attendees were challenged to reflect on what needs to be 'redefined' in their lives in order for them to fully live on mission — whether that's redefining identity, work, relationships, or other aspects of their lives.

"God is opening Southern Baptists' eyes to the reality that each of us has been sent by Him to proclaim His Gospel wherever we live right now and wherever He leads us in the future," Platt told the Baptist Press.

"I'm praying that the ripple effects of these two days will reach far and wide as God uses the men and women send out from this conference to lead people and people groups to Christ in the days ahead," Platt added.

The Long Beach conference was one of three Send Conferences that will be taking place this year. The conference will also be taking place in Dallas, TX from May 19 to 20, and in Orlando, FL from July 25 to 26.

David Lee (center) shared some of his poems at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on February 5, 2017.

After Overcoming His Own Challenges, One Teen Aims to Give Hope Through Writing

BY JOHN LEE
TRANSLATED BY RACHAEL LEE

Since the day David Lee was born, he was faced with challenges to overcome. He was born prematurely, weighing 1.8 kilograms, and had retionpathy and cerebral palsy. But at the young age of 13, he has already written 120 poems, and in 2016, published his first collection of poems called, 'The Child Who Walks in Wisdom.' At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on Sunday, Lee recited some of the poems that he had written since he was just 8 years old.

Every poem that was recited at the event was greeted with a loud applause. Lee's poems, which explored various themes such as the Bible, nature, and family, made listeners cry, and at other times, laugh. The poet who chose to hope in God despite a hopeless physical condition brought hope to those who were listening to his words.

"I prayed about what I would become," Lee said. "Through poetry, I dreamed dreams. I wanted to become a driver who could drive ambulances and help people who have disabilities like me, or to become a doctor. But through prayer and meditating on the the Word, I decided to live the life of a preacher of the gospel who can heal the body and the soul."

Lee currently lives in Gyeonggi province in South Korea with his parents and two younger sisters. His father, Rev. Geun Soo Lee, decided to homeschool rather than send his children to public school. David Lee has read 10 chapters of the Bible each day, and has been able to read the entire Bible dozens of times. He also has incredible command of history.

At the event on Sunday, one member of the audience asked him what happened in the U.S. in 1961, and Lee was able to explain in detail the events that occurred from 1961 to 1963, much to the surprise of those who attended.

"Just as it says in Numbers 6, ...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ents to show what it looks like to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nd all your strength, and we must raise our children as equals before the Word," said Rev. Lee. "I am a father, but I must honestly confess that I also have done wrong."

"I was challenged by David, who gained the wisdom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world through the Scriptures," said one attendee of the event.

Mission Agape Recognized by Atlanta City Council for Community Service

BY ANDERSON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Mission Agape, which has carried out acts of love and service toward those who are homeless in downtown Atlanta, received a proclamation on February 6 from the Atlanta City Council, recognizing and honoring the work of the organization.

Councilmember Mary Norwood, who is one of the candidates for mayor of the city, introduced the work that Mission Agape has done in the presence of the 16 other city councilmembers, and said, "I am proud of the love and service that the Korean community has shown through Mission Agape, and I am very grateful that we are able to partner with them in metro Atlanta."

"I'm thankful that the city council prepared this time to honor us," said James Song, the president of Mission Agape. "We may be of different race and religion, and we may not have a lot in common, but I still think of us as one family."

"I want to credit this award to the volunteers who have quietly served for the past eight years," said one Mission Agape staff. "Mission Agape will continue to be at that place of service with an unchanging heart, and strive to be a serving hand."

Mission Agape has offered various programs and events to serve the homeless, and has also partnered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Hosea Feed the Hungry. Over the last year, the ministry prepared more than 40,000 meals and provided 700 new coats, according to the group's website.

Mission Agape received a proclamation from the Atlanta City Council recognizing its service to the community on February 6.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Betsy DeVos Confirmed as Education Secretary, Amid Contentious Debate and Mixed Responses

Betsy DeVos was confirmed by the Senate to head the nation's Department of Education on Tuesday with a close vote of 51 to 50.

DeVos' confirmation is being called as one of the most contentious ones yet, as it required an unprecedented tie-breaking vote from the president of the Senate, Vice President Mike Pence. This marks the first time that a Vice President was called to break a tie in a confirmation vote for a Cabinet position.

The Secretary of Education received more attention than most of her predecessors, and her nomination had been highly controversial. She received much criticism for her performance during the confirmation hearing in January, in which she had difficulty answering many questions about education policy.

DeVos' critics also point to her lack of experience in public education — neither she nor her children have attended public schools — and her lack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education and politics as reasons she is unqualified for the position.

DeVos is also known to be an advocate of charter schools and vouchers.

Maria Ferguson,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on Education Policy, told The Atlantic that DeVos garnered negative attention because she represented "every negative aspect of what people feel [education] reformers are: white, entitled, wealthy, send their kids to private school."

"And when she finally took the stand and had the opportunity to tell the world who she was, she did a very bad job of it," Ferguson added, referring to the confirmation hearing.

Supporters of DeVos argue that Democrats feel threatened by the changes she will bring to the education system as an outsider. For instance, Senator Lamar Alexander of Tennessee was quoted by the New York Times as saying that DeVos "led the most effective public school reform movement over the last few years."

Meanwhile, responses from the Christian community have also been mixed.

On the one hand, some like Ralph Reed, the founder and chairman of the Faith & Freedom Coalition, defend DeVos. In an op-ed for Fox news, Reed described DeVos as a "convincing and passionate advocate for the cause of school choice and greater parental control over how and where their children are educated."

"In her worldview, education dollars should follow the student to the best available school whether it be a traditional public school, charter school or private school," Reed said.

Rev. Robert Sirico of Action Institute pointed to DeVos' Christian faith, and told CBN News that DeVos is a "solid evangelical Christian," and that she is "orthodox in her beliefs and personal commitment to Jesus Christ."

On the other hand, her opponents, including more than 2,700 alumni of DeVos' alma mater Calvin College, say that they haven't been convinced that she is qualified. The Calvin alumni signed a letter listing four main concerns they have with DeVos, including her "advocacy of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o religious and charter schools," among others.

DeVos is a member and elder at Mars Hill Bible Church, a non-denominational church in Grand Rapids. She attended Holland Christian High School before attending Calvin College, where she graduated with a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science. DeVos also previously held the title of chairperson for the Michigan Republican Party. Her husband, Dick DeVos, is son of Richard DeVos, the owner of the Orlando Magic team, and co-founder of Amway.

At a gathering of Christian philanthropists in 2001, DeVos said the she and her husband hope to "confront the culture in which we all live today in ways which will continue to advance God's kingdom, not to stay in our own safe territories."

Congress Introduces Legislation to Allow Non-Profits to Make Political Endorsements

Members of the Congress introduced legislation that would change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s tax code to allow non-profit entities to endorse or oppose political candidates without having their tax-exempt statuses revoked.

Under the Johnson Amendment of 1954, non-profit groups — including houses of worship, charities, and universities — a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or intervene in (including the publishing or distributing of statements), any political campaign on behalf of (or in opposition to) any candidate for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e IRS tax code. Hence, churches are allowed to have non-partisan voter drives, for example, but they aren't allowed to endorse or oppose a candidate.

Congress introduced a new act that aims to allow non-profits to endorse or oppose political campaigns while maintaining their tax-exempt statuses. (Photo: 'Cliff' user on Flickr / CC)

The law came into the limelight recently as Trump made it one of his main talking points during his presidential campaign, and at the National Prayer Breakfast on Thursday, Trump reiterated that he would "get rid of and totally destroy the Johnson Amendment and allow our representatives of faith to speak freely and without fear of retribution."

The recently introduced legislation, called The Free Speech Fairness Act, would allow non-profits to make statements in support of or in opposition to political campaigns if they are "made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 organization's regular and customary activities in carrying out its exempt purpose." This means that churches and other non-profits would still not be allow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al campaigning, but their tax-exempt status wouldn't be revoked if they simply made political statements in the course of their regular activities.

Those political statements must also not incur "more than de minimis" expenses, meaning, the minimal amount of expenses. This portion of the legislation would thus prohibit non-profits from publishing or broadcasting ads, or any other expensive endeavors, on behalf of political campaigns.

"Any nonprofit institution shouldn't have to worry about the IRS watching and monitoring what they say," said Senator James Lankford (R-Okla.), who introduced the act in Senate, along with Steve Scalise (R-La.) and Jody Hice (R-Ga.) who introduced the act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en you work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you don't lose your right to assembly, you don't lose your right to free press, you don't lose your Second Amendment rights, you don't lose your right to privacy. But for whatever reason, we have said that if you work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you do lose your right to free speech. That's absurd," Lankford said.

Though Trump has focused on pastors being unable to endorse political candidates from the pulpit when discussing the Johnson Amendment, and though all of those who introduced the act are Republican, this legislation would allow endorsements and opposition for all non-profit entities across the board.

"It's not obvious that the Free Speech Fairness Act would favor Republicans," wrote Daniel Hemel, an assistant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t would allow Planned Parenthood the same freedom to endorse candidates that it would give to, say, Samaritan's Purse."

Some who are religious say that they wouldn't want pastors to take political sides on the pulpit. Amanda Tyler,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aptist Joint Committee for Religious Liberty, was quoted by the New York Times as saying that doing so "would usher our partisan divisions into the pews."

In a September 2016 LifeWay Research survey, 79 percent of Americans said they do not believe it appropriate for pastors to endorse candidates during church services. Meanwhile, 52 percent also said that churches should not lose their tax-exempt status for publicly taking a political stance.

Trump Continues Obama's Non-Discrimination Order Protecting LGBT

The Trump administration stated on January 30 that it would keep employment protections for LGBT workers provided by a 2014 executive order.

"President Trump continues to be respectful and supportive of LGBTQ rights, just as he was throughout the election," the administration said in a statement. "The president is proud to have been the first ever GOP nominee to mention the LGBTQ community in his nomination speech, pledging then to protect the community from violence and oppression."

The 2014 executive order signed by President Obama prohibited federal hiring practices from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the policy already barre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t also prohibited contractors that do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from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e announcement was received with mixed responses. Some LGBT activists, like Chad Griffin of the Human Rights Campaign, said that Trump must do more to express his commitment to the LGBT community.

"Trump talks a big game on his support for LGBT people, yet he has filled his cabinet with people who have literally spent their careers working to demonize us and limit our rights," Griffin said. "Donald Trump has left the key question unanswered -- will he commit to opposing any executive actions that allow government, employees, taxpayer-funded organizations, or even companies to discriminate?"

Meanwhile, conservatives pushed Trump to ensure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and companies would be exempt from the policy.

"I am prayerfully confident that the president and his team will issue an executive order ensuring charitable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re not prohibited, because of their biblical views of marriage and human sexuality, from receiving contracts or grants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n order to provide critical services to people in need, like refugees and the homeless," said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화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갸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케어아름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사은품) 공짜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H2Wealth+ HOT & COLD 500ml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PNC PRO-Z Gold Glucose Control Clinically proven to stimulate glucose metabolism 60 capsules Made in USA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BAJA CALIFORNIA SEA SALT "UNESCO World Heritage Area" Naturally Harvested by Pure Breeze & Sun Pollution Free, Living Ocean SeaSalt 100% Pure All-Natural Mineral SeaSalt 100% Natural Mineral Salt
BIZPOST GROUP INC. BAJA CALIFORNIA SEASALT INC. www.bizpostgroup.com TEL : 1. 213. 505. 1114 www.bajacaliforniaseasalt.com Made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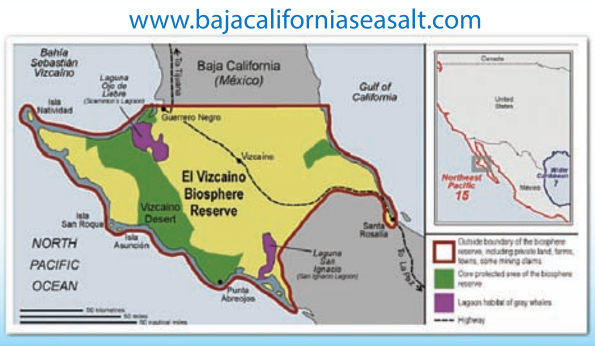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tax

구입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